

# ‘-로’의 의미와 제어나누기

양 정 석

(원광대학교)

Yang, Jeong-Seok. 1999. 'Measuring-out' and the Meaning of the Korean Particle '-lo'. *Linguistics* 7-3, 235-256. It is shown that the Korean particle '-lo' has the meaning of 'measuring-out'. 'Measuring-out' is a semantic notion that represents the aspect of correlating between two proportionally developing semantic elements pertaining to two different ontological categories. The particle '-lo' captures the parallel, proportional relation between the path meaning and other event, state, or time meaning, expressed in the same sentence. This point is discussed through the critique of existing studies on the meaning of '-lo', thereby demonstrating that the two alleged 'basic meanings', 'path' meaning and 'change of state' meaning, are reduced to the semantic relation 'measuring-out'. (Wonkwang University)

## 1.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조사 '-로'가 '제어나누기'라는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표현하는 요소임을 밝히는 데에 있다. 제어나누기는 시간, 공간, 사물, 경로, 상태 등의 존재론적 범주에 속하는 여러 의미 요소들 사이에 나타나는 특정한 비례적 대응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선행 연구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제어나누기의 개념을 이끌어내고, 이에 따라 '-로'와 관련된 국어 구문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각각의 구문에 내재되어 있는 제어나누기의 의미적 요소를 드러내고자 한다.

종래 국어문법 연구에서는 논항 또는 부가어로서의 'NP로'의 통사·의미적 성격보다는 형태소로서의 '-로'의 기본 의미를 찾는 일이 주된 관심사로 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로'의 쇠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셋을 들어 논의하고자 한다. 임홍빈(1974)에서는 '-로'가 [+선택적]이라고 표시되는 기본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유동석(1984)에서는 '변성'의 의미를, 정희정(1988)에서는 '경로'의 의미를 '-로'의 기본 의미라고 각각 주장하였다. 이 중에서

'경로'와 '변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로' 문장들을 검토하여 이들에 공통되는 재어나누기의 의미 국면을 도출해 내려고 한다. '-로'가 가지는 기본 의미 국면인 재어나누기는 이 '-로'를 가진 'NP로'의 문맥적인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된다고 본다.

다음 본론에서는 1)공간상의 움직임임을 나타내는 동사들의 문장에서 '-로'의 '경로' 의미가 어떻게 '재어나누기'와 연관되는지를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그밖의 문장에서 쓰이는 '-로'의 다른 의미를 확장적으로 설명한다. 다음으로, 2)'변성'의 '-로'를 중심으로 한 접근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변성'에도 재어나누기의 의미 국면이 포함되지만, 이 하나의 의미로 모든 '-로'의 의미를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이게 될 것이다.

## 2. 경로의 '-로'

종래의 연구자들은 '-로'가 가지는 기본 의미를 규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들의 '기본 의미'는 형태소의 의미이다. 형태소가 가지는 의미는 문장 구성에 참여할 때에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구성성분의 의미가 결합되어 문장 구성의 의미를 이루어갈 때 '합성성 원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 이 글의 관점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기본 의미'의 적부는 통사구조와의 대응 하에서 의미구조가 형성될 때 이러한 의미 규정이 가지는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임흥빈(1974)의 '선택'의 의미는 다음 두 문장의 대비에서 드러난다고 한다.

- (1) 가. 그는 편지를 나에게 보냈다.  
나. 그는 편지를 나에게로 보냈다.

[+선택적]이란, 명사구(여기서는 '나')에 올 수 있는 다른 대상이나 인물을 배

---

1. 홍윤표(1978)에서는 이동동사 구문을 중심으로 방향성을 나타내는 '-에', '-로', '-를'의 의미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로'가 '목표로 향한 동작의 방향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로'가 도달된 목표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는 점에서 정희정(1988)과 같다. 남기심(1993)에서는 풍부한 자료를 통해 '-로'의 용법을 분석해 보이고 있다. '-로'가 나타나는 전 범위의 용례를 통사·의미적 기준에서 분류·제시하고 있어 이 글의 의미 분석을 위해 큰 도움이 되었다.

제하고, 바로 그 대상이나 인물을 선택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것이 '행동주의 전제'가 아니라 '화자의 전제'라고 말하고, '-로'가 쓰이는 갖가지 구문에서의 관계의미의 다양성은 문장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1나)에는 '-로' 앞에 격 표지 '-에게'가 나타났지만, 명사구 뒤에 '-로'만 나타나는 경우는 무형의 격 표지가 심층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규정은 다음과 같이 '-로'가 같은 환경에서 두 가지 뜻을 나타내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에 무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가. 철수가 학교로 갔다.

나. 철수가 삼십 분 만에 학교로 갔다.

(2가)에서 '학교로'는 단순한 '방향'의 의미와 도달된 '목표(Goal)'의 의미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나)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삼십 분'이 목표인 '학교'로 도달하기까지의 시구간인 의미와, 특정 참조시로부터 '가는' 사건이 시작되기까지의 시구간이 삼십 분이라는 의미가 그것이다. '방향'의 뜻만을 나타내는 다음 움직임 동사의 문장과 대비해 보면 그 차이를 잘 알 수 있다. (3나)는 '시작까지의 시구간'이라는 의미만이 가능하다.

(3) 가. 철수가 학교로 걸었다.

나. ?철수가 삼십 분 만에 학교로 걸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 '선택'은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흥빈(1974)에서는 '선택' 의미가 '화자의 전제'로서 주어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화용론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로'의 실현은 통사·의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4) 가. 철수가 학교로 걸었다.

나. \*철수가 학교에 걸었다.

(5) 가. 철수가 학교로 갔다.

나. 철수가 학교에 갔다.

왜 (4가)는 가능한데 (4나)는 불가능한가? 반면, 왜 (5가)와 (5나)는 둘 다

가능한가? ‘걷다’는 어휘 내적으로 ‘-에’를 요구하지 않지만 ‘가다’는 내재적으로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로’의 실현이 통사·의미적인 동기에 의한 것임을 말해 준다. ‘목표’ 의미의 ‘NP로’는 동사 ‘가다’와 선택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로’가 동사의 의미와 관련된 뒤에서 다른 ‘-로’ 문장들의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구성성분들의 의미가 결합되어 더 큰 구성의 의미를 형성할 때 합성성 원리가 지켜진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우리로서는 정회정(1988)의 ‘경로’와 유동석(1984)의 ‘변성’이 ‘-로’의 의미의 규정으로서 문제의 핵심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회정(1988)의 ‘경로’는 ‘방향’과 ‘경유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그러나 그의 논의는 ‘-에’와의 비교에 초점을 두고 둘 사이의 차이를 밝히려는 목적에서, ‘-로’를 가지는 (2)와 같은 경우에 ‘학교로’가 도달된 목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예써 외면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가 들고 있는 다음 예문을 살펴 보자.

(6) 가. \*그는 학교에 갔고, 드디어 학교에 도착했다.

나. 그는 학교로 갔고, 드디어 학교에 도착했다.

(6가)가 어색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6나)가 완전히 적격한 문장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적어도 시상(aspect) 형태 ‘-었-’을 부착한 상태로는 둘 사이에 차이를 두기 어렵다. (7)과 같은 정도의 문법성 표시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7) 가. ?그는 8시 반에 학교에 갔고, 현재 드디어 학교에 도착했다.

나. ?그는 8시 반에 학교로 갔고, 현재 드디어 학교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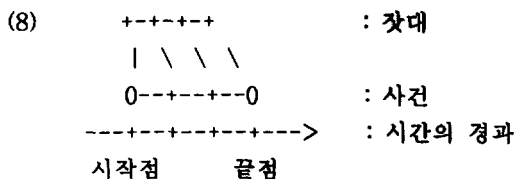
필자는 양정석(1999가)에서, ‘가다’ 따위의 이동동사와 ‘걷다’ 따위의 움직임 동사가 구별되며, 이들의 차이는 전자가 한계성(boundedness)을 당연값(default value)으로 가지는 데 반해서 후자는 그러한 특질을 당연값으로도 가지지 않는 데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가 (2)-(7)의 사실을 해석하는 데에 직접 소용된다. 특히, (2), (7나)의 문장들이 한계성의 값을 가지는 것은 이동동사 ‘가다’의 한계성에 의한다는 것이다. 이 점과 함께 ‘-로’의 성격에 관해서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된다. ‘-로’는 경로의 표현이되, 이 경로는

한계성에 관해서 무표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동동사 구문의 'NP로'가 도달된 목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동사가 한계성을 가지지 않는 '걷다' 따위 움직임 동사의 구문에서는 'NP로'가 한계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도달된 목표를 표현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이동동사와 움직임 동사 구문의 경우, 조사 '-로'를 한계성의 값이 정해지지 않은 경로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sup>2</sup> 이에 비하여 '-에'는 기본적으로 장소의 표현이며, 고유하게 한계성의 값을 가진다고 본다. 위에서 (5)의 두 문장의 차이는, (5가)가 동사 '가다'에 의해서 한계성을 가지는데 반해 (5나)는 '가다'와 '-에'에 의해 이중으로 한계성을 부여받는다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의미가 다른 모든 '-로'에서도 유지되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경로'의 의미를 더 해체하여 봄으로써 이 문제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Jackendoff(1996)에서는 Tenny(1987, 1994)에서 고안된 '재어나누기(measuring-out)'의 개념을 새로이 조정하여 받아들이고, '사건', '상태', '경로', '장소' 등의 범주에 속하는 의미 요소들을 더 원자적인 의미 특질들로 해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3</sup>

Tenny(1987)의 '재어나누기' 개념은 목적어 논항과 비행동성 구문의 주어 논항이 사건을 시간적으로 한계짓는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보일 수 있다. 행동성 구문에서 목적어는 눈금이 그려져 있는 '잣대(measure)'가 되어, 사건을 시간적 경과에 따라 재어나누는다.



2. Jackendoff(1996: 309)에 의하면 영어에서는 'to'와 'toward'가 각각 한계성과 비한계성의 경로 표현으로 분화되어 왔으며, 네덜란드말에서는 이것이 분화되지 않고 하나의 전치사 'naar'가 쓰이고 있다고 한다. 국어에서도 '-로'가 이 두 가지를 포괄하며, 나아가 영어에서 'via'로 표현되는 경유의 의미까지를 포괄하는 형태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이와 비교되는 조사 '-에'는 한계성을 내포하는 장소의 표현으로서, 영어의 at, in, on 모두를 포괄한다.

3. Tenny(1987, 1994)의 재어나누기 개념에 대한 소개와 국어의 예를 통한 비판, 그리고 Jackendoff(1996)의 재어나누기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양정석(1999가)을 참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통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한 채의 집을 짓는 사건은 내재적으로 그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다. (9가) 예문에서는 '집 한 채'를 기준으로 사건의 경과를 파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가. 그 사람이 집 한 채를 지었다.

나. 그 사람이 한 달 만에 집 한 채를 지었다.

(9나)는 집 한 채를 지은 기간이 한 달임을 보여주는데, 특히 이 사건이 그 기간 마지막에 완성됨을 드러내 주고 있다. 이런 경우의 목적어 '집 한 채'는 전형적인 '잣대'로 쓰인 것이다. 집이 다 완성되기 전에도 '집 한 채를 아직 짓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이처럼 '창조/생성'을 표현하는 동사의 목적어로서 '집 한 채'는 이미 만들어진 결과물로서의 집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집 한 채'를 눈금이 그려진 잣대로 삼아 집을 짓는 사건을 조망하고 있는 것이 (9가)나 (9나)의 문장이라고 하겠다. 집이 처음 지어질 때의 단계로부터 전체의 건물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의 각 단계를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집 한 채'의 완성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각 단계는 시간상의 어느 한 시점과 대응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위 그림이 보여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잣대'인 '집 한 채'는 집 한 채를 짓는 사건을 '재어나눈다(measure-out)'고 한다.

행동성 의미를 지니는 문장의 주어는 사건의 구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9가)에서 목적어를 복수의 표현으로 바꾸면 단일 사건이 아닌 반복적 사건을 의미하게 되지만, 주어는 그와 같은 결과를 유발하지 않는다.

(10) 가. 그 사람이 집들을 지었다.

나. ?\*그 사람이 한 달 만에 집들을 지었다.

(11) 가. 사람들이 집 한 채를 지었다.

나. 사람들이 한 달 만에 집 한 채를 지었다.

목적어가 사건을 재어나눈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명사구의 의미와 문장의 의미가 긴밀한 상호 관련을 가짐을 보여주는 (9)-(11)의 예들을 체계적으로 포착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Jackendoff(1996)에서 새롭게 조정된 재어나누기의 개념은 반드시 시간성

을 내포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상태, 경로, 장소, 사물의 의미 범주들 사이에서도 재어나누기가 나타나는 것을 허용한다. 또, Tenny의 재어나누기와는 달리 시간적 한계성과도 독립된, 더 넓은 개념으로 파악되어, 완성동사 (accomplishment verb)나 성취동사(achievement verb) 외에도 재어나누기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재어나누기 개념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투사축의 비례적, 의존적 대응 관계로 해석된다.

공간상의 점이나 선, 평면, 시간상의 점은 투사되어 ‘투사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가령 평면상의 환형이 1차원으로 투사되어 이루어진 투사축은 파이프 형태가 되고, 사각형이 1차원으로 투사하여 이루어진 투사축은 직육면체가 된다. 시간의 경과를 점으로서의 시점이 1차원으로 투사한 투사축이라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경로는 공간상의 0차원의 점인 장소가 1차원으로 투사되어 이루어진 투사축으로 가정된다. 둘 이상의 투사축의 진행 양상이 일정하게, 비례적으로 발전되면서 한 투사축이 다른 투사축에 의존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 투사축이 잣대가 되어 의존되는 다른 투사축을 재어나눈다고 한다.

앞의 그림 (8)과 함께 예문 (9)를 다시 생각해 보자. 예문 (9가)에서 목적어가 잣대가 된다고 한 것은, 목적어 ‘집 한 채’가 고정된 물체로서가 아니라 시간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놓인 것으로서 파악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목적어의 상태 변화는 투사축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상태 변화의 각 단계는 집 짓는 사건의 전개 과정의 한 단계와 대응되며, 또한 시간의 경과 상의 각 단계와 대응된다. 집 짓는 사건의 전개와 시간의 경과는 각각 투사축으로서 해석된다. 따라서 이 경우 세 개의 투사축이 상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9)의 목적어 명사구 ‘집 한 채’는 그 자체로 한계성을 가지는 표현이므로, 이 한계성이 사건과 시간을 한계짓게 된다. 이에 따라 (9) 문장이 한계성의 사건, 즉 완성동사의 구문을 이루게 된다. Jackendoff는 ‘투사축’ 개념을 매개로 하여 목적어의 상태의 변화, 사건의 전개, 시간의 경과를 독립된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들 사이의 비례적인, 의존적인 대응 양상을 포착하되, 한계성의 개념은 별도의 요인으로 분리해 놓는다. Jackendoff의 재어나누기 개념은 이렇게 한계성으로부터 독립된 개념인 것이다.

(9)에서는 목적어의 상태의 변화가 사건의 전개, 시간의 경과와 비례적 대응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지만, 국어에서 ‘NP로’ 성분도 이와 유사한 의미적 국면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경로’를 나타냄으로써 다른 투사축

인 시간이나 사건, 또는 다른 명사구의 의미와 비례적인 대응 관계를 맺는 것이 '-로'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본다. '경로'는 장소가 1차원적으로 투사된 것으로 상정된다. 이동하는 물체가 경유하는 길의 구간이 경로의 기본적인 개념이 된다. 시원(Source)과 목표는 이 구간의 시작과 끝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서 경로의 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계성의 값이 고정되지 않은 경로가 경유지이며, 경유지에 시작의 값이 정해진 것이 시원, 끝의 값이 정해진 것이 (도달된) 목표이다. '-로'가 쓰인 구문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느 경우에도 'NP로'로 표현된 경로가 이 경로를 따라 행해진 사건(또는 상태, 사물)과 비례적인 대응의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경로'의 표현이라고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 관계가 나타난다.

먼저, 운동 표현에 나타나는 경로의 '-로'는 사건의 경과로서의 투사축, 시간의 경과로서의 투사축, 그리고 장소의 투사축인 경로, 이 세 개의 투사축의 상호 관련 하에 나타난다. 운동 표현에 나타나는 조사 '-로'의 예를 나누어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2) 목표의 '-로' :

가. 철수가 교무실로 갔다.

나. 부대가 청송으로 움직였다.

(13) 경유지의 '-로' :

철수는 들길로 뛰었다.

(14) 방향의 '-로' :

철수는 교무실로 뛰었다.

(12)의 두 문장에서 'NP로'는 경로로서 투사축을 형성하며, 이것은 시간의 투사축, 사건의 투사축과 독립적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이 축들은 서로 비례적인 대응을 이루면서 발전한다. 그러므로 한 축에 한계성의 값이 주어지면 이 값은 다른 축으로 동시적으로 전승된다. (12가, 나)에서 이동동사 '가다'와, 움직임 동사에서 이동동사로 전이된 '움직이다'는 한계성의 값을 가지고 있고, 이들 동사가 가진 사건 축의 한계성 값이 시간의 축과 경로의 축으로 전승되는 것이다.<sup>4</sup>

4. (12가)는 이동동사 구문이고 (13), (14)는 움직임 동사 구문이다. 이 구분에 대



(13)에서 ‘들길로’는 경유지의 표현인데, 이것이 사건의 경과에 비례적으로 대응함은 분명하다. 대상인 ‘철수’의 움직임에 따라 ‘들길’이라는 경유지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시간의 경과가 일정하게 대응하여 있는 것이다. (12)의 목표는 한계성의 값이 고정된 경로이지만, (13)의 경유지는 한계성을 가지지 않은 경로이다.

(14)의 ‘방향’이 경로의 하나임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명시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14)에서 ‘교무실로’는 ‘교무실로 향하여’로 쉽게 바꿀 수 있다. 교무실로 향하는 일과 교무실로 향하여 움직이는 일은 완전히 같은 형식으로 표현된다.

(14) ‘철수가 교무실로 향하였다.’

이렇게 볼 때, (14)의 ‘-로’를 경로 표현의 한 전이된 형태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라 하겠다.

홍윤표(1978), 정희정(1988) 등 앞선 여러 연구에서는 ‘-로’ 명사항이 도달된 목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12)의 두 문장에서는 그 점이 가능함을 관찰할 수 있다.

(12) ‘가. 철수가 오 분 만에 교무실로 갔다.’

나. 부대가 한 시간 만에 청송으로 움직였다.

여기서의 한계성이 ‘-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동동사인 ‘가다’와, 움직임 동사에서 이동동사로 전이된 ‘움직이다’가 문장의 의미에 한계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경로 표현 ‘NP로’에도 한계성을 전승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건의 경과와 경로가 비례적 대응의 관계, 즉 재어나누기의 관계를 가짐에 따라 가능해진다.

원래 Tenny(1987)의 재어나누기 개념은 목적어(또는 비행동성 구문의 주어)가 사건을 재어나누는다는 발상에서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12가, 나), (13)에서는 목적어 아닌 ‘NP로’ 성분이 동사로써 표현된 사건과 비례적 대응을 이루고 있다. 이 점에서, 더 넓은 경우로 확장하여 발전된

---

해서는 양정석(1999가)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12나)는 움직임 동사가 이동동사적 용법을 갖는 특별한 예이다. 이 역시 양정석(1999가)에서 논의되었다.

Jackendoff(1996)의 재어나누기 개념이 요구되는 것이다.

재어나누기 개념이 목적어는 물론이고 경로의 구와도 관계되지 않는 예로 ‘머무르다’ 동사를 들 수 있다. ‘머무르다’ 동사는 ‘-로’를 허용하지 않고 ‘-에’만을 취한다.

(15) 가. \*철수가 그 집으로 머물렀다.

나. 철수가 그 집에 머물렀다.

‘머무르다’는 한 대상이 한 장소에서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치해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동사이다. 이것은 시간의 경과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건임에 틀림없으나, 대상은 내적으로 아무런 변화를 입지 않고, 외적으로도 이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의 투사인 경로를 형성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사건의 경과와 시간의 경과가 비례적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재어나누기의 의미 국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공간상의 물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다음 (16)의 ‘-로’에서 재어나누기의 의미 국면이 뚜렷이 관찰된다. 이는 이른바 ‘재료’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16) 재료의 ‘-로’ :

인부들이 벽을 페인트로 칠했다.

(17) 손이 페인트로 벌겋다.

이와 같은 경우를 ‘경로’의 의미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경로’를 재어나누기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을 여기에도 확장해 볼 수 있다.

(16)에서 ‘페인트’는 사건 및 시간의 경과, 그리고 그에 따른 목적어 ‘벽’의 상태의 변화와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양적인 증가를 보여 준다. ‘벽’은 0차원의 점에서 2차원으로 투사된 평면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 평면상의 부분부분이 재료인 페인트의 양의 증가와 비례적인 대응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비례적 대응 관계가 (17)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는 상태성 구문의 주어인 ‘손’이 장소가 되어, 이 장소의 부분부분과 이 장소에 분포하는 재료 ‘페인트’의 양적인 대응이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상태 표현에도 재어나누기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16)과 (17)의 문장 형식의 공통성은 이와 같은 ‘재어나누기’를 매개로 하여 설명된다.

'-로' 표현에서 '원인'의 의미는 '재료'의 표현, 또는 '경유지'의 표현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인'과 '재료'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처리하는 예를 남기심(1993: 269)에서 발견할 수 있다.

(18) 데모대로 시내 중심가가 찻다. (273쪽)

여기서 '데모대로'는 사건의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공간을 채운 '재료'로 간주될 수도 있다. '원인'이 '재료'로부터 유래하는 경우는 '-로' 앞의 명사구가 비한계성의 특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남기심(1993: 279)에서 '원인'의 의미를 가지는 예로 든 다음 문장들이 이에 대한 반례로 지적될 만하다.

(19) 가. 노천명 시인이 사슴이라는 시로 유명하다.

나. 그 때 이미 공옥진씨는 동물 춤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경유'의 의미가 두드러진다. (19가)는 '사슴이라는 시'를 길로 해서, (19나)는 '동물 춤'을 길로 해서 유명해지거나 알려졌다는 의미이다. 다음과 같이 '말미암다' 동사를 가진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다.<sup>5</sup>

(19)' 가. ?노천명 시인이 사슴이라는 시로 말미암아 유명하다.

나. 그 때 이미 공옥진씨는 동물 춤으로 말미암아 알려져 있었다.

'말미암음'이 '길' 또는 '경유'의 의미로부터 추상화된 것임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원인'의 '-로'는 '재료'나 '경유지'의 표현으로부터 유래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재료'나 '경유지'는 재어나누기의 요소를 가장 뚜렷이 나타내 주는 의미적 측면이다. 따라서 원인의 '-로'도 재어나누기 개념을 통하여 잘 설명된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나타나는 '방편'은, '경로'의 의미를 근처에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재어나누기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일이 쉽지 않다.

---

5. 상태성 동사의 문장 (19가)가 완전히 자연스럽게 않은 것은 문체상의 이유에서인 듯하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아주 자연스럽게 고기암으로 말미암아 기온이 건조하다.

(20) 방편의 '-로' :

그가 지렛대 하나로 큰 바위를 움직였다.

여기서 보통의 방식으로 재어나누기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지렛대'의 움직임이 '바위'의 움직임이라는 사건과 일정한 비례적 대응을 이루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로'가 방편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살펴 보면, 그것은 전형적으로 동사의 의미가 사동성을 띠는 경우이다. '방편'이란 이렇게 사동적인 사건에서 행위자가 결과 사건을 야기함에 있어서 부속적인, 방편적 사건을 도입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행위자는 도구에 특정의 작용을 가하고, 이로 말미암아 도구가 결과 사건을 유발하는 것이다. 여기서 'NP로'는 해당 'NP'를 포함하는 사건(방편 사건)이 경유하는 경로로서 파악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방편의 '-로'는 재어나누기의 표현이 된다.

부속적인 방편 사건을 도입하는 특징이 있다는 설명은 이 경우의 '-로'가 '-로써'로 항시 대체될 수 있다는 데에서 지지를 얻는다. 주지하듯이 '-로써'는 역사적으로 '-로'와 동사 '쓰다'의 결합으로부터 발달하였다. 이와 같은 결합형의 존재는 방편의 '-로'의 의미가 여타의 '-로'의 의미로부터 상당히 이질화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다른 것들은 주로 장소,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투사축(경로)을 형성하는데 비해 이 경우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투사축(경로)을 형성하는 것이다.

'방편'의 경우에는 '-로써'가 가능함에 비해 '재료'의 경우는 그것이 부자연스럽다.

(21) \*인부들이 벽을 페인트로써 칠했다.

앞에서 '원인'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제시한 '-로'의 경우는 '-로써'로 대체하는 일이 '재료'의 경우보다 낫기는 하지만 역시 부자연스럽다.

(22) 가. \*데모대로써 시내 중심가가 찼다. (재료)

나. ?\*노천명 시인이 사슴이라는 시로써 유명하다. (원인)

다. ?\*그 때 이미 공옥진씨는 동물 춤으로써 알려져 있었다. (원인)

재료의 '-로'는 방편의 경우와 아주 다른 것이다. 재료의 'NP로'가 그 자

체로 경로의 표현임에 반해, 방편의 'NP로'는 이 NP가 가리키는 사물을 사용하는 사건을 보충함으로써 이 사건을 통한 힘의 행사를 본질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경우의 '-로'는 재어나누기의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 3. '변성'의 '-로'

이른바 '변성'의 의미로 알려져 온 다음의 '-로'도 재어나누기 개념으로 조명해 볼 수 있다.

(1) 변성의 '-로' :

- 가. 그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 나. 경애가 상냥한 아이로 변했다.

운동 표현에서의 목표는 움직임을 수행하는 대상이 그리로 향해 가는 목표이지만, 이 경우의 목표는 상태의 변화가 이르게 되는 목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두 경우 모두 사건 및 시간의 경과와 경로 표현 사이에 재어나누기 관계가 맺어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경로가 시원과 목표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2) 경애가 고집쟁이에서 상냥한 아이로 변했다.

운동 표현에서 움직임을 수행하는 대상은 그 자체의 내적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에 비해 (1)에서 대상 의미역을 갖는 '아들', '경애'는 그 자체가 변화를 입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경우는 그 변화가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적 변화의 측면이 뚜렷이 인식되지 않는다. 대상 자체가 물리적인 변화를 보이는 예를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가.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나. 울챙이가 개구리로 변했다.

상태 변화의 문장은 기본적으로 이동동사 구문의 경우와의 유추 하에 기술할 수 있다. 여기서는 대상이 공간상의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한 상태에서부터 다른 상태로 '이동'한 것이다.

다음은 좀더 특이한 예로서, 대상 자체가 투사됨을 보여준다. 이를 뻗어나감의 '-로'라 부를 수 있다.

(4) 뻗어나감의 '-로' :

- 가. 호남고속도로가 광주로 뻗었다.
- 나. 호남고속도로가 대전에서 광주로 뻗었다.

'뻗다' 동사는 '가다' 따위의 이동동사처럼 목표물(4가), 시원과 목표의 조합을(4나) 동반하고 사용될 수 있다. 이동동사와 다른 점은 대상 자체가 선적인 투사를 겪는다는 것이다. '도로'는 '떠'처럼, 선적인 폭을 가지면서 긴 직사각형의 투사축을 이루는 것으로 인지된다. 이 경우의 'NP로'는 시간성의 판단에서 모호함을 드러낸다. 목표물 가짐에도 불구하고 다음처럼 시간 부가어와의 공존에 있어서 불안정성을 보인다.

- (5) 가. ?호남고속도로가 1년 만에 광주로 뻗었다.
- 나. ?호남고속도로가 1년 만에 대전에서 광주로 뻗었다.

'뻗어나감'의 의미 환경에서의 '-로'의 쓰임 역시 '-로'가 '재어나누기'의 의미 관계를 표현한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좋은 증거이다. 이 경우는 'NP로'의 경로가 주어인 대상물 자체의 투사와 비례적 대응 관계를 맺고 있음이 특징이다.

(1)에서 관찰되는 '변성'의 의미는 이와 같은 '뻗어나감'의 의미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변화의 결과인 '목표'의 표현이 '-로'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대상이 내적인 변화를 입는다는 점에서도 공통된다. 다만 '뻗어나감'의 경우, 변화하는 것은 1차원의 물리적 대상물인 투사축 '길'이 자체적으로 확장되는 것임에 비해, '변성'의 경우에는 물리적 대상물이라기보다는 속성의 변화가 함의되고 있는 것이다.

유동석(1984)에서는 '-로'가 그 원초적 의미로 '변성'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의미 규정은 (1) 유형의 문장에서 관찰되는 의미로부터 출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는 'NP로'의 모든 쓰임을 동사와의 공존 형식으로 환원해 보이려고 시도하였다. 부가어로 쓰이는 'NP로'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한다.

- (6) 가.  $N_1$ 를  $N_2$ 로 하여 -->  $N_1$ 로
- 나.  $N_1$ 를  $N_2$ 로 하여 -->  $N_1$ 를  $N_2$ 로

이 경우의 '하다'는 '삼다'를 중심으로 한 동사의 어휘의미를 대신하는 대동사라고 한다. 이러한 동사의 의미에서 포착되는 원초적인 의미가 '변성'이며, 또한 '하여'에서 부사형 어미 '-어'가 가지는 의미가 '-로'에 전이되어 이 조사의 고유한 의미를 형성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설명은 '-로'를 가지는 구문 중 그 통사구조의 설정과 관련하여 난문제를 제기하는 (7)과 같은 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할 길을 열어준다.

- (7) 그 사람은 신용으로 마침내 성공했다.
- (7)' 가. 그 사람은 신용을 밀천으로 마침내 성공했다.
- 나. 그 사람은 신용을 밀천으로 하여 마침내 성공했다.
- 다. ?그 사람은 밀천을 신용으로 (하여) 마침내 성공했다.

(7가)'의 경우는 (7나)'에서 '하다' 동사가 삭제된 것으로 설명한다. (7)은 (7나)'가 (7다)'의 단계를 거쳐서 명사 '밀천'과 동사의 부사형 '하여'가 탈락됨으로써 얻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6)과 같은 도식으로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는 예들이 있다. 먼저 (8)과 같은 예를 '변성'의 의미로 환원하여 설명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유동석(1984: 139)에서도 이러한 경우 ' $N_1$ 로 향하여 -->  $N_1$ 로'와 같은 과정이 개재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하여, 방향의 '-로'에 대해서는 '변성'과는 다른 도식으로 환원하고 있는 것이다.<sup>6</sup>

- (8) 그 집은 바다로 향하여 서 있다.
- (9) 가. 그 집은 방향을 바다로 하여 서 있다.
- 나. \*그 집은 방향을 바다로 서 있다.
- 다. \*그 집은 바다로 서 있다.

---

6. 그러면서도 유동석(1984: 143)의 요약 부분에서는 다시 (6)과 같은 도식으로서의 환원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

하지만, 기저적인 형식인 (9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9나, 다)가 불가능한 것을 보면, 모든 '-로'의 표현이 (6)의 도식으로 환원 가능하리라는 그의 예측은 잘못된 것이다.

이밖에도 '시간', '경유지', '양태'을 나타내는 '-로'는 앞서의 (6)의 도식으로 환원하기 어렵다. '시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0) 가. 이 꽃은 봄으로 핀다. (유동석(1984: 142)에서)  
       나. \*이 꽃은 계절/철/시간/을 봄으로 하여 핀다.
- (11) 가. \*철수와 나는 오후 4시로 만났다.  
       나. 철수와 나는 시간을 오후 4시로 하여 만났다.

(10가)의 경우는 (10나)와 같은 환원이 불가능하다. 반면, (11)에서처럼 환원된 형식은 가능하지만 'NP로'만의 표면적인 형식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sup>7</sup>

'경유지', '양태'를 나타내는 '-로'의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 (12) 가. 그는 들길로 이웃마을에 갔다.  
       나. ?\*그는 노정을/경유지를 들길로 하여 이웃마을에 갔다.  
       다. \*그는 노정을/경유지를 들길로 이웃마을에 갔다.
- (13) 가. 그는 진지한 자세로 나의 말을 들었다.  
       나. \*그는 자세를/태도를 진지한 자세로 나의 말을 들었다.  
       다. 그는 자세를 진지한 자세로 하여 나의 말을 들었다.

이상의 사실이 보여주는 바는, 유동석(1984)에서 '원초적 도식'으로 환원한 것을 기저의 통사구조와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동석(1984)에서 (6)과 같은 '원초적 도식'으로 환원하는 동기는 '-로'가 '삼다'류 동사의 '변성' 의미로부터 비롯됨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8)-(13)의 예들은 '-로'가 적어도 현대국어의 시점에서 '변성'과는 다른 의미로 인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8)의 '방향'이나 (12)의 '경유지'는, 경로의 표현으로 쓰이는 '-로'가 '변성'과는 다른 문맥 환

---

7. 필자에게는 (10가)도 받아들이기 힘든 문장이다.



경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동동사 구문의 '-로'가 '목표'와 '방향'의 두 가지 의미로 중의성을 가진다고 말한 바 있다. '목표'의 경우에, 동일한 의미를 유지하면서 위 (6)과 같은 원초적 도식으로 환원하기는 불가능한 듯하다. (14)와 (15)는 각각 '방향'과 '목표'의 경우이다.

- (14) 가. 철수가 교무실로 갔다.
- 나. 철수가 교무실을 방향으로 하여 갔다.
- 다. ?철수가 방향을 교무실로 하여 갔다.
- 라. \*철수가 방향을 교무실로 갔다.
- (15) 가. 철수가 교무실로 갔다.
- 나. 철수가 교무실을 목표로 하여 갔다.
- 다. ?철수가 목표를 교무실로 하여 갔다.
- 라. \*철수가 목표를 교무실로 갔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도달된 목표의 의미를 가지는 (15)의 경우인데, 유동석(1984)의 방식대로 기저적 형식을 환원한 (15나)와 (15다)는 결코 도달된 목표의 의미를 가지는 (15가)와 동의일 수 없다. 다음에서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 (15)' 가. 철수가 오분 만에 교무실로 갔다.
- 나. 철수가 오분 만에 교무실을 목표로 하여 갔다.
- 다. ?철수가 오분 만에 목표를 교무실로 하여 갔다.

(15가)'에서 '오분'은 '시작부터 끝까지의 시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15나, 다)'의 경우는 '시작까지의 시구간'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이상의 사실은 '-로'의 의미를 일괄적으로 '삼다'류 동사와 부사형 어미 '-어'의 의미로부터 전이된 것으로 보려는 유동석(1984)의 시도에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로서는, '변성'과 함께 '경로'가 '-로'의 의미로서 필요하다고 본다. 이 둘을 논리적으로 묶을 수 있는 개념적 장치가 '재어나누기'이다. 또 이러한 관찰은, 움직임 동사와 이동동사의 구문에서 경로의 의미와 관계되는 'NP로' 부가어들을 모두 묶어 어떤 기저적 형식으로 환원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하는 몇 개의 독립된 부가어로 나누어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흔히 ‘자격’이나 ‘속성’, 또는 ‘양태’로 지칭되어 온 ‘-로’의 용법들은 하나의 부류로 묶일 수 있는데, 이들의 의미는 ‘변성’의 의미로부터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로’는 ‘-로’의 쓰임 중에 재어나누기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예이다. 이들을 세 가지로 경우로 다시 나누어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기로 한다.

1) (16)의 세 문장에서 비례적 대응 관계는 ‘그’와 ‘총무과장’ 간에 맺어지는 것으로 본다.

(16) 자격의 ‘-로’ :

- 가. 그는 이 회사에 총무과장으로 근무한다.
- 나. 그는 현재 이 회사에 총무과장으로 있다.
- 다. 그는 현재 이 회사의 총무과장으로,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다.

(16)의 ‘자격’은 위에서 제시한 ‘변성’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6)’ 가. ?그는 이 회사에 총무과장으로 되어 근무한다.

- 나. ?그는 현재 이 회사에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다.
- 다. ?그는 현재 이 회사의 총무과장으로 되어,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다.

환원된 형식을 포함한 문장들인 (16)’은 다소 억지스러운 데가 있다. 그러므로 (16)’와 같은 구조를 (16) 문장들의 통사적 기저로 설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sup>8</sup> (16)의 ‘자격’은, (16)의 ‘변성’에서 비례적 대응 관계를 인지하던 데서 연유하여, 그 정당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변성의 결과 상태에서 그 관계를 계속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자격’의 의미를 가지는 ‘-로’ 문장들은 이른바 ‘묘사 서술화(depictive predication)’ 구문을 이룬다. 묘사 서술어로 쓰이는 ‘NP로’는 보통 ‘속성’의

---

8. 유동석(1984)에서처럼 ‘삼다’를 가진 타동사 형식으로 환원한다고 사정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표현으로 생각되지만, 다음 예는 '속성'과 '자격'이 분리되기 힘든 사정을 보여준다.

(17) 진이는 영수와 내 앞에 아니꼬운 꼴로 나타났다.

Rothstein(1983: §5.1)에 의하면 영어의 묘사 서술어는 앞의 의미상 주어가 잠재적으로 가지는 순간적 속성을 표현한다고 한다. 잠재적으로 변할 수 있는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 묘사 서술어의 의미적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제약은 국어의 'NP로' 묘사 서술어에도 해당된다고 본다. '-로' 부가어도 잠재적인 변화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는 '변성'의 '-로'에서 관찰되었던 제어나누기의 관계가 순간적 단계의 표현인 속성의 표현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생각하다, 믿다, 여기다' 등의 동사에 이끌리는 구문도 전형적으로 '속성'을 표시하는 'NP로'를 취한다. 이 경우도 유동석(1984)의 방법에 따라 '하다' 또는 '삼다' 동사를 가지는 꼴로 환원할 수 없다.

(18) 가. 철수는 경애를 미인으로 생각했다.

나. \*철수는 경애를 미인을 속성으로 하여/삼아 생각했다.

다. \*철수는 경애를 속성을 미인으로 삼아/삼아 생각했다.

(18가)의 'NP로'는 논항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여기서의 '-로'도 잠재적인 변화 가능성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용법이라고 생각된다.

3) 'NP를 NP로' 형식이 한 단위로 부가어적인 기능을 보이는 예가 국어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유동석(1984)에서 지적된 바 있고, 남기심(1993)에서도 실제로 사용된 언어 자료에서 다양한 예들을 새로 찾아내고 있다. 다음은 남기심(1993)에서 가져온 예이다.<sup>9</sup>

9. 남기심(1993)에서는 이들 문장에서 'NP를 NP로' 형식이 임의로 생략될 수 있다는 점, 한 단위로 자리옮김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점, 'NP를'과 'NP로' 사이에 부사가 삽입될 수 없다는 점, 명사구 'NP를'이 관계관형절의 표제가 될 수 없다는 점, 'NP를'이나 'NP로'가 분열문의 초점 위치에 올 수 없다는 점 등을 자세히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NP를 NP로'가 독립된 구성성분으로서 부가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19) 가. 일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나. 그들은 전국을 무대로 장사를 시작했다.

다. 할아버지의 병세는 오늘을 고비로 호전되었다.

라. 의화 도피 역수를 국세청의 기초 조사를 근거로 알아 내었다.

마. 우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의 계획을 세웠다.

‘NP를 NP로’ 형식의 통사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극히 난해한 것으로, 여기서 결정을 지을 수는 없다. 다만 이 형식이 가지는 의미는, ‘하다’ 동사의 생략이나, ‘하다’에 상응하는 공범주의 보충 같은 통사론적 처리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의미는 ‘변성’으로, 이 역시 재어나누기의 관계를 내포하는 것이다.

#### 4. 마무리

조사 ‘-로’는 종래의 연구에서 ‘경로’, ‘목표’, ‘경유지’, ‘방향’, ‘방편’, ‘재료’, ‘원인’, ‘변성’, ‘자격’ 등 다양한 의미로 규정되어 왔다. 또는 ‘선택’이나 ‘경로’, 혹은 ‘변성’이라는 기본 의미로 환원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로’가 ‘재어나누기’라는 의미론적 국면을 바탕으로 하여 표현되는 요소라는 것을 밝혔다. 움직임 동사 구문과 이동동사 구문에서 두드러지는 ‘경로’의 의미로부터, 그밖의 여러 구문에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의미 차이들이 재어나누기라는 공유된 의미 국면을 매개로 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

기본적으로 구성성분의 의미가 모여 문장의 의미를 이루어 갈 때 합성성 원리가 지켜져야 함을 받아들이고, 이 점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을 우선적으로 취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서 ‘-로’에 대한 종래의 여러 의미 규정이 유익한 기여와 함께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이러한 문제성이 직관적인 ‘기본 의미’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유래한다고 보고 통사구조와의 긴밀한 상관성 속에서 형식화할 수 있는 의미를 포착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로’ 문장에서 동사가 가지는 의미와

---

10. 또는, 남기심·조은(1993)에서와 같이 ‘NP를 NP로’를 소절 구성으로 처리하되, 이 구성의 의미 해석을 위한 규칙을 따로 설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NP로'가 가지는 의미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참고문헌

- 남기심. 1991. 국어의 격과 격조사에 대하여, *거례문화* 5. 한국거례문화연구원.  
 남기심. 1993. 국어 조사의 용법. *서평학술자료사*.  
 남기심·조은. 1993. '제한 소절' 논항구조에 대하여, *동방학지* 81. 연세대 국학연구원.  
 양정식. 1999가. 움직임 동사와 논항 연결, 재어나누기, 언어와 정보 3-1. 한국언어정보학회.  
 양정식. 1999나. 선택계약을 부여하는 부가어 규칙-경유지의 'NP로'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43. 한국언어문학회.  
 유동석. 1984. {로}의 이질성 극복을 위하여, *국어학* 13. 국어학회.  
 유현경·이선희. 1996. 격조사 교체와 의미역, *국어문법의 탐구* III. 태학사.  
 이남순. 1983. '에'와 '로'의 통사와 의미, *언어* 8-2. 한국언어학회.  
 이선희. 1998. Proto-role theory and the accusative case marker ul/lul in Korean, *언어와 정보* 2-2. 한국언어정보학회.  
 임홍빈. 1974. '로'와 선택의 양태화, *어학연구* 10-2. 서울대 어학연구소.  
 정희정. 1988. '에'를 중심으로 본 토씨의 의미, *국어학* 17. 국어학회.  
 최현배. 1971[1937]. *우리말본*. 정음사.  
 홍윤표. 1978. 방향성 표시의 격, *국어학* 6. 국어학회.  
 홍재성. 198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탑출판사.  
 Dowty, D.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3.  
 Jackendoff, R. 1996. The proper treatment of measuring out, telicity, and perhaps even quantification in English,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4.  
 Rothstein, S. 1983. *The Syntactic Forms of Predication*. PH.D. dissertation, MIT.  
 Tenny, C. 1987. *Grammaticalizing Aspect and Affectedness*. PH.D. dissertation, MIT.  
 Tenny, C. 1994. *Aspectual Roles and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Kluwer Academic Publishers.

---

11. 'NP로'를 몇 가지로 나누어 부가어 규칙으로 형식화한 사례를 양정식(1999가, 나)에서 참조할 수 있다.

256 양 정 석

570-749 전북 익산시 신통동 344-2  
원광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E-mail: jsyang@wonms.wonkwang.ac.kr